

2016년 북한 시장 동향

임강택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tim@kinu.or.kr

I. 머리말

2016년 북한의 시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포착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북한당국의 시장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적극적인 ‘활용’과 시장의 확장성 및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통제’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시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시장화가 이제 상당 수준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제재로 인한 북한 시장의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최근까지 북한에서 시장이 빠르게 발전해 온 데에는,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시장(장마당)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당국의 ‘비법’적인 시장활동에 대한 묵인과 시장경제적 요소가 포함된 경제관리방식 도입이 북한시장의 질적·양적 팽창을 촉진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으로서의 국가의 생산능력과 재정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의 생산능력과 경쟁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컸던 것이다.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이어져 오고 있어, 지금 북한경제에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구조의 경제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16년 북한 시장에 나타난 눈에 띄는 특징은, 시장가격의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장가격의 안정세가 눈길을 끄는 것은 2016년 한 해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추가적으로 이행되었으며, 통상적으로 외부의 경제제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시장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II. 북한 시장의 발전: 한계와 가능성

1.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에도 시장화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배경에는 ‘우리식경제 관리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시도한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되었고, 시장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목인하고 있는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농업 및 기업 부문의 관리방식에서 개별 기업(협동농장)과 개인(포전)들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농업부문에서는 ‘생산물 분배 할당제’를 도입하여 개인 몫은 자유롭게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동농장 내 작업분조의 규모를 4~6명 수준으로 축소(포전담당책임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부문에서는 독립채산제(예산 독립제도)와 월급제가 채택되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시장경쟁의 원칙이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경우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자율적으로… 하는 기업관리방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제도가 눈길을 끄는 것은, 기업들에 ‘생산품목 선택권’과 ‘이익의 분배권’, 그리고 ‘무역권’ 등을 부여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¹⁾ 이러한 정책의 기초는 기업들이 창조적 자율성을 발휘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인데, 국영기업들이 시장공간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시장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당국은 2014년경 평양에 주택거래소를 설치하고 주택의 사적 거래를 뒷받침해 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²⁾ 이는 최근 국영건설사업소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합법화시키는 조치로, 시장화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동일뉴스』, 「북, 자율경영권 전면화 한 '5·30조치' 실시 확인돼」, 2014. 9. 23.

2)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 평양에 생긴 주택거래소, 사적소유 인정 신흥탄인가, 2014. 12. 16.

2. 국영부문과 시장부문의 협력적 공존

북한에서 시장이 국영부문과 공식적으로 공존하게 된 계기는 2003년 3월, 국가가 ‘종합시장’을 설치하여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 및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종합시장은 지방 행정단위에서 건립하고 국영기업소처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상품의 거래가격은 기본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였다.³⁾ 이러한 조치는 국영기업과 협동단체들이 공식적인 시장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과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현재도 북한당국은 매년 생산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하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지만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영부문의 공장·기업소들은 국가에서 받은 계획분(생산계획과 액상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원자재의 구입을 포함해서 상품의 판매와 자금의 조달 등이 시장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⁴⁾ 국영부문이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과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개인 자산가(돈주)들이 투자나 경영을 위해 국영부문에 진출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돈주’들은 국영부문과 비공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거나 단순 투자하는 형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돈주’들은 국가가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대신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국영기업소의 명의를 빌리고 적당한 수준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서 시장영역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생필품과 시외버스와 같은 운수 서비스 및 식당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북한에는 국영부문과 시장부문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상호협력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에서 계획의 영역은 점차 축소되고 대신에 시장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빠른 속도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

북한에서 시장이 빠르게 그 영역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북한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3) 다만, 국가의 가격조절 대상 품목인 쌀, 식용유, 설탕, 조미료 등과 같은 상품들은 지방 정부가 책임지고 한도가격을 설정하여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2009, pp.113~114 참조).

4) 임강택,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3, pp.49~70 참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의 생산력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경제활동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체제 안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으로서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시장활동이 체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의 시장화에 대한 최근의 대응 조치는 정치·사회·경제 3개 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조치로는 ‘돈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6년 북한당국은 시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자산가(소위 ‘돈주’)들이 국영기업 부문에 ‘불법적’으로 진출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현상들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다. 그동안 돈주들의 이러한 경제활동들이 사실상 묵인되어 왔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치는 돈주들의 사적인 경제활동이 합법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시장의 개인 자산가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고, 시장활동이 당국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의 끈을 조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조치로는 연이은 대중노동동원 등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은 ‘70일 전투’(2. 24~5. 2)와 ‘200일 전투’(6. 1~12. 15)를 통해서 일년 내내 주민들의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사회적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이 어느 정도나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생계를 해결하는 대다수의 일반 주민들이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활력을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조치로는 국영부문이 시장부문과 경쟁하도록 하는 방법과 사적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먼저, 국영부문이 현대화된 대규모 쇼핑센터와 편의점,⁵⁾ 식당 및 전문상점 등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영부문이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영역과의 경쟁에 나서도록 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결혼식뿐만 아니라 회갑잔치와 돌잔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식장도 등장하였고, 전자상업 홈페이지인 ‘만물상’을 개설하여 식료품 주문봉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⁶⁾ 이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돈주’에 대한 단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적 경제활동이 지나치게 통제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여전히 불법적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대표적인 대형쇼핑센터로는 2012년에 평양의 광복지구에 문을 연 ‘광복지구상업중심’이 있고, 편의점으로는 2014년 12월에 개정한 ‘황금별상점’이 있다. 이 황금별상점은 평양에 3군데 개설되었으며,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통일뉴스’, ‘北 전자상업홈페이지 ‘만물상’ 개설’, 2016. 11. 12.

Ⅲ. 2016년 북한 시장의 분야별 동향

1. 시장의 물가 변동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시장에서 쌀을 중심으로 하는 식량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곡물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에서의 곡물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6년 북한은 수확기에 쌀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할 조짐이 보이자 식량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9월에만 중국에서 1만 8,477톤의 쌀을 수입했으며, 10월에도 약 8,900톤을 수입하였다.⁷⁾ 특이한 사실은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쌀의 가격이 중국 변경지역의 소매가격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⁸⁾

또한 옥수수의 시장가격도 2016년 중반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2,092(북한)원에서 6월 1,050원으로 급락한 이후 12월 1,123원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는

〈표 1〉 북한 시장의 쌀가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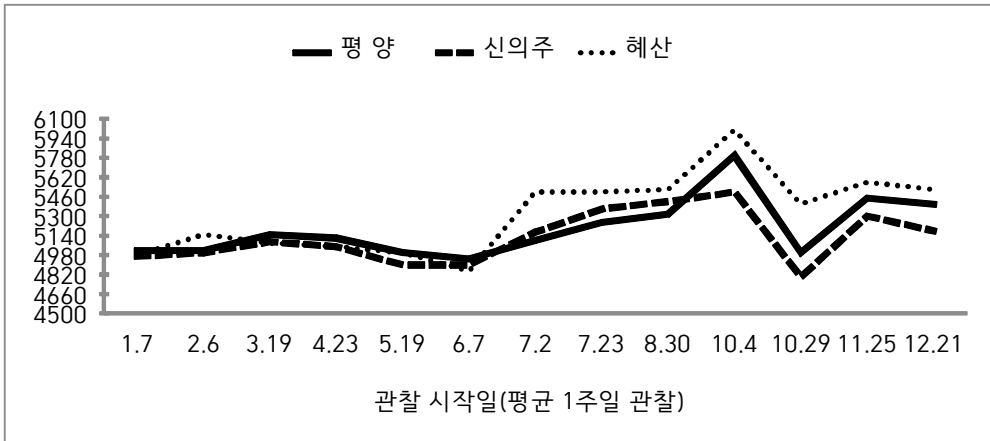
관찰기간	북한 시장의 쌀 가격(북한 원/1Kg)		
	평양	신의주	혜산
2016. 1. 7~1. 13	5,019	4,970	4,980
2016. 2. 6~2. 12	5,019	5,000	5,150
2016. 3. 19~3. 25	5,150	5,090	5,080
2016. 4. 23~4. 29	5,120	5,050	5,050
2016. 5. 19~5. 25	5,000	4,900	5,000
2016. 6. 7~6. 13	4,950	4,900	4,850
2016. 7. 2~7. 8	5,100	5,169	5,500
2016. 7. 23~7. 29	5,250	5,360	5,500
2016. 8. 30~9. 5	5,315	5,420	5,520
2016. 10. 4~10. 10	5,800	5,500	6,010
2016. 10. 29~11. 4	5,000	4,800	5,400
2016. 11. 25~12. 1	5,450	5,300	5,580
2016. 12. 21~12. 27	5,400	5,180	5,520

자료: 『DailyNK』, 北장마당동향(www.dailynk.com, 접속일: 2017. 1. 15).

7) 『연합뉴스』, 「北, 10월 중국서 곡물 8천900t 수입…작년 3배」, 2016. 12. 1.

8) 중국 현지의 대북무역업자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쌀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쌀은 3년 이상 묵은 오래된 쌀로, 햅쌀의 반값도 안 되는 쌀 가격에 거래된다고 한다.

[그림 1] 북한 시장의 쌀가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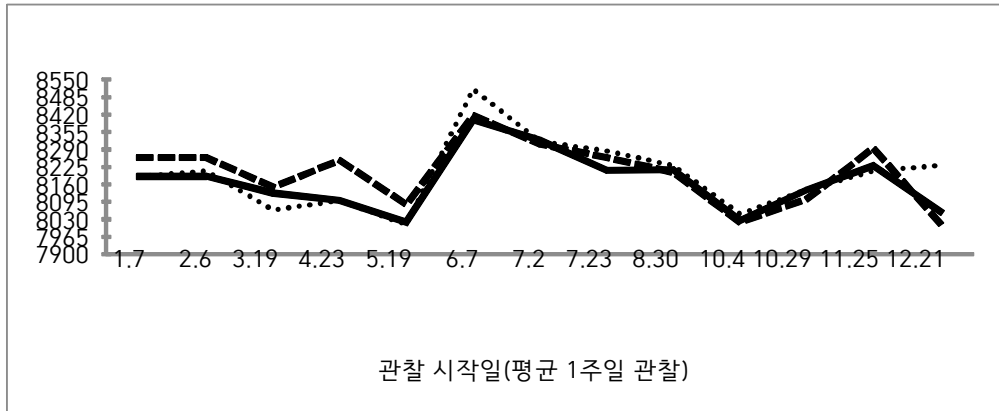
자료: 『DailyNK』, 北장마당동향(www.dailynk.com, 접속일: 2017. 1. 15).

<표 2> 북한 시장의 환율 변화 추이

관찰기간	북한의 시장 환율(북한 원/미 달러)		
	평양	신의주	혜산
2016. 1. 7~1. 13	8,190	8,260	8,190
2016. 2. 6~2. 12	8,190	8,260	8,210
2016. 3. 19~3. 25	8,128	8,150	8,065
2016. 4. 23~4. 29	8,100	8,250	8,100
2016. 5. 19~5. 25	8,020	8,085	8,010
2016. 6. 7~6. 13	8,400	8,417	8,515
2016. 7. 2~7. 8	8,325	8,310	8,320
2016. 7. 23~7. 29	8,212	8,260	8,285
2016. 8. 30~9. 5	8,215	8,205	8,230
2016. 10. 4~10. 10	8,025	8,020	8,050
2016. 10. 29~11. 4	8,140	8,105	8,140
2016. 11. 25~12. 1	8,230	8,295	8,210
2016. 12. 21~12. 27	8,060	8,015	8,230

자료: 『DailyNK』, 北장마당동향(www.dailynk.com, 접속일: 2017. 1. 15).

[그림 2] 북한 시장의 환율 변화 추이



자료: 『DailyNK』, 北韓市場동향(www.dailynk.com, 접속일: 2017. 1. 15).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하락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옥수수 가격의 하락 원인으로는 외부에서 수해피해 지역에 지원한 식량의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⁹⁾

2016년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6~7월 사이에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시장에서 환율이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어, 2016년에 국한해서 분석하자면, 아직까지는 북한의 시장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공식시장의 양적 변화

2003년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의 현대식 시장이 허용된 이후, 기존의 장마당을 흡수하는 형태로 각 지역마다 지방정부가 건립한 시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북한 시장의 수는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사진 등을 통해서 추계하게 된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위성사진을 통한 연구에 따르면, 201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북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식시장의 수는 436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15년에 확인되었던 396개에서 40개가 늘어난 것이다.¹⁰⁾ 시장의 개수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 지표는

9) 『RFA』, 「대북지원으로 북 식량 값 폭락」, 2016. 12. 7.

10) 『RFA』, 「북한의 공식 시장 436개 확인」, 2017. 3. 15.

시장건물이 현대화되고 면적이 증가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5년 동안 기존의 시장건물을 개보수한 사례가 71건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 흥미로운 현상은 지방의 시장건물 옆에 주차장 공간이 마련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¹²⁾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도 북한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시장에서 관찰되는 변화들

북한당국이 전국의 주요 공식시장을 대상으로 한동안 사라졌던 ‘2부제’를 다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³⁾ ‘2부제’는 하나의 판매대에서 두 명의 장사꾼이 교대로 장사를 하는 제도로, 2011년 10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되자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가 2016년 11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부제’는 두 명의 장사꾼이 한 주에 3일씩 교대로 판매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당국은 자릿세를 일주일분을 다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2부제’는 당국이 자릿세를 통한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북한 내에서는 ‘개인약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⁴⁾ 약국은 그동안 시 인민위원회 보건과 약품관리소가 담당했다. 평안남도 순천시의 경우, 2016년에만 ‘돈주’가 운영하는 개인약국이 3개나 개설되었는데, 2012년경부터 공식적으로 허용된 개인약국은 자체적으로 구입한 국내외 약품을 당국의 약품관리소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판매하게 되어있다. 시장보다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품’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택시영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상도 눈길을 끌고 있다. 평양에만 1,500대 이상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기본요금 2달러에 추가 1km당 56센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 평양의 택시는 대동강여객운수사업소가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지만, 지방택시는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택시를 운영하는 개인이 지정된 월 이윤을 국영기업소에 납부하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11) 커티스 멜빈, 「위성이미지가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경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p.73.

12) 평양에는 몇 년 전부터 백화점과 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설치되었다고 한다(『RFA』, 「차 타고 장 보러 가자, 북 지방 시장에도 주차장」, 2016. 12. 31).

13) 『RFA』, 「북, 장마당 ‘2부제’ 부활」, 2016. 11. 8.

14) 『DailyNK』, 「北돈주, 의료시스템 장악?... ‘약국’ 직접운영 성행」, 2016. 11. 16.

15) 『VOA』, 「평양 택시 1,500대 이상, 기본요금 2달러」, 2016. 3. 29.

소고기가 시장에 등장한 것도 최근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¹⁷⁾ 북한에서 소는 생산수단으로 간주되어 공동소유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적인 도살도 금지되어 있으며, 소를 도살하다 적발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대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소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소고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시장에서 소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되고 있는 소고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드물게 볼 수 있는 북한산 소고기는 늙고 병든 소를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다고 한다.

최근 북한에서는 ‘돈주’가 신용으로 물건이나 자재 및 건물임대까지 제공해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⁸⁾ ‘돈주’가 돈별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식당 건물의 임대뿐만 아니라 자재 구입비용까지 빌려준다는 것으로, 최근에는 식당뿐만 아니라 의류 및 제조업 분야에서 담보 제공이나 돈을 받지 않고 원자재를 제공해 주는 일종의 신용거래, ‘후불제’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IV. 향후 전망

북한 시장의 발전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체제나 정권 유지에 위협적인 요소보다는 효용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당국의 부족한 상품공급 능력을 적절하게 보완해 주고 있는 시장의 기능을 상당 기간 동안 국영부문이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시장을 통해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효과도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지금 북한당국이 시장을 전격적으로 폐쇄한다면 국영기업마저도 원활하게 가동되기 어려울 정도로 국영부문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시장의 확산이 김정은 정권에 주는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고, 그 범위가 여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시장의 점진적인 진화를 북한당국이 당분간은 묵인할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당국은 어떤 상황에서 시장을 폐쇄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공식부문의 생산력이 증가하여 시장이 없어도 충분한 물자공급이 가능한 상태가 도래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 국영부문의 생산력 증진과 물자공급

16) 『DailyNK』, 「지방 北 장사꾼, 택시를 상품운반 수단으로 활용」, 2016. 3. 3.

17) 『RFA』, 「북 경매당에도 쇠고기 등장」, 2016. 7. 28.

18) 『DailyNK』, 「돈주만 식당 운영?...무일푼 北주민 후불제 경영 성행」, 2016. 12. 2.

능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공업 부문의 생산공장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늘리고 ‘광복지구상업중심’과 같이 외국자본과의 협작을 통해서 대규모 쇼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복지구상업중심’에서 취급하는 물건들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어서 상품구입 비용으로 외화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 측에서 수익의 많은 부분을 챙겨 가기 때문에 북한 측의 이윤은 매우 적은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결국 시장과의 경쟁을 목적으로 중국자본을 유치하여 현대식 쇼핑센터를 건설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수익창출에는 실패하였던 것이다. 또한 ‘광복지구상업중심’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시장과의 서비스 경쟁에 뒤처지면서 점차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된 점도 실패의 중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노력은 아직까지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종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당국은 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에 의지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화가 통제의 범위를 뛰어넘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단속을 간헐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로 ‘돈주’들의 영향력 확산과 세력화 가능성을 경계하는 쪽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시장화를 통해서 북한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많은 권력기관들과 권력엘리트 계층이 시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득권층들이 시장화의 가장 큰 수혜계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해 보면, 그동안 당국의 묵인 속에서 발전해 온 ‘불법적인’ 시장화 현상들은 경제관리방법의 개선조치라는 형식으로 제도화 또는 추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첫째, 사유화를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둘째, 사적 경제활동을 합법화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식적으로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는 시장활동의 영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시장활동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증대시키는 효과로 연결되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적 경제활동을 합법화하는 조치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 자산가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국영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가 가시화되면, 소규모 자영업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사적 제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처럼 북한에서도 정치·이념적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정책방향에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위에서 언급한 시장활동의 제도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붉은 자본가'의 등장과 양극화의 심화 가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붉은 자본가를 인정하는 조치는 사회주의 체제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확대되고 사회적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에서 시장의 제도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시장을 통한 경제발전이 일정한 궤도에 도달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임강택,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3.
- 커티스 멜빈, 「위성이미지가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경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 평양에 생긴 주택거래소, 사적소유 인정 신호탄인가」, 2014. 12. 16.
- 『연합뉴스』, 「北, 10월 중국서 곡물 8천900t 수입…작년 3배」, 2016. 12. 1.
- 『통일뉴스』, 「북, 자율경영권 전면화 한 ‘5·30조치’ 실시 확인돼」, 2014. 9. 23.
- 『통일뉴스』, 「北 전자상업홈페이지 ‘만물상’ 개설」, 2016. 11. 12.
- 『DailyNK』, 「지방 北, 장사꾼, 택시를 상품운반 수단으로 활용」, 2016. 3. 3.
- 『DailyNK』, 「北돈주, 의료시스템 장악?...‘약국’ 직접운영 성행」, 2016. 11. 16.
- 『DailyNK』, 「돈주만 식당 운영?...무일푼 北주민 후불제 경영 성행」, 2016. 12. 2.
- 『DailyNK』, 北장마당동향(www.dailynk.com, 접속일: 2017. 1. 15).
- 『RFA』, 「북 장마당에도 쇠고기 등장」, 2016. 7. 28.
- 『RFA』, 「북, 장마당 ‘2부제’ 부활」, 2016. 11. 8.
- 『RFA』, 「대북지원으로 북 식량 값 폭락」, 2016. 12. 7.
- 『RFA』, 「차 타고 장 보러 가자!, 북 지방 시장에도 주차장」, 2016. 12. 31
- 『RFA』, 「북한의 공식 시장 436개 확인」, 2017. 3. 15.
- 『VOA』, 「평양 택시 1,500대 이상, 기본요금 2달러」, 2016. 3. 29.